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인간은 자신만의 내밀한 욕망을 지니고 산다.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표현의 욕망이다.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존재한다고 말할 만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자아를 성립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이 자아를 외화하는 것이 바로 표현과 소통이다. 그것은 본능적인 수준의 '감각'이나 '느낌'에 기반할 수도 있지만, 문명화된 인간이라면 체계적인 '생각'을 자신을 표현하는 기반으로 삼는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그림그리기에 대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필요가 있다. 그림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2차원의 평면 위에다 옮겨 놓는 표현 행위이다. 그것은 감각 수준의 행위에서 출발한다. 그림과 연관된 감각은 단연 시각이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신체로 접수된 시각적 자극은 시지각을 만들어낸다. 형태와 색채 정보를 접수하여 신경세포들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거치면서 지각을 생성한다. 그것을 화면 위에 옮기는 행위는 근육운동과 더불어 촉각의 작용이 크다. 연필이나 붓, 도구나 손가락 등의 신체 부위를 감각기관으로 사용하는 그림그리기는 촉각의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듯 시각과 촉각을 이용한 그림그리기는 몰입이라는 현상을 유발한다.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과정은 고도의 집중을 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

에 몰입했을 때 나타나는 몰입의 쾌감은 자아성찰이나 치유 등과 같은 정신작용을 일으킨다. 신경세포들의 정교한 협업으로 이뤄지는 그림그리기를 심리치료로 연결시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병적인 현상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지만, 최소한 그러한 심리상태 표현으로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합의점이 있다. 예술가들의 그림그리기는 보다 전문적이어서 그림을 체계적인 인지와 연결한다. 그것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각을 담는다. 그것은 사상과 의식을 담거나 비판정신을 담아내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그림그리기가 유발하는 표현과 인지의 연쇄작용은 성찰이라는 고도의 정신작용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곧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즉 '예지'에까지 도달한다. 직업적인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얼마든지 잠재해 있다. 누구나 그림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정서적 안정감이나 인지적 충만감을 가질 수 있다. 예술작품 창작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 화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림그리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편견으로 인해 미술을 멀리하는 경향이 완연하다.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왜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그렇게 서툰 것일까? 노래나 춤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술감각을 뽐내는 사람들이 유독 그림그리기라는 예술 감각을 놓치고 사는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그림그리기라는 표현 방법이 새롭게 눈을 떠 보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하는 '비대면사회'의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 강추한다.

사설

방심은 금물, 고강도 방역 필요하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제주 역시 지난 16일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일부 완화 방침과 달리 현재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강화된 코로나 방역 대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며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사회 감염 종식 및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황·황만으로 임도하는 해외방문 이력자와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제주도의 고삐를 바짝 죄는 방역대책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제주의 경우 타지방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이나 소규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제주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이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대거 찾은 전망이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역사회 확산되자 지난 달 23일 초종교 개혁을 했다. 2주만에 다시 휴교했습니다. 제주 지역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제주경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지역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고용 지표 위축이 심각한데다 사회 전반에 일자리를 잃는 실직자 양산 사태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호남통계청의 '3월 제주도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65.8%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p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65.4%를 보던 이후 6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용률은 올해만 지난 1월 69.2%에서 2월에 1.6%p 떨어지는데 이어 3월에 다시 1.8%p 하락하는 등 빠르게 고용시장 위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수는 2월 38만명에서 3월 37만명으로 떨어져 불과 한 달사이 1만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작년말 기준 39만명까지 올랐던 수치를 감안하면 코로나19사태 이후 일파만파로 번지는 고용시장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고용시장 충격이 큰 와중

에 고사위기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창구인 제주 신용보증재단의 신규·추가보증 지원이 중단되는 비상상황까지 맞았습니다. 중앙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바닥'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신용보증 중단되면서 현재 상담중이거나 상담 신청 후 대기중인 인원 총 6000여 명의 긴급 자금지원이 당장 막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여파는 막심해 질 전망이다. 제주경제의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3월 고용률, 취업자수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데 이어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마저 끊기면 경제의 작년말 기준 39만명까지 올랐던 수치를 감안하면 코로나19사태 이후 일파만파로 번지는 고용시장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고용시장 충격이 큰 와중

열린마당

우리동네 마을번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박정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오는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정부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꼭 찾아온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물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지만 한 순간. 이럴 때는 우선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에서 국민의 법률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만든 마을번호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번호사제도는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이메일,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

무소, 법무부 홈페이지(마을번호사로 검색)를 통해 마을번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번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에는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번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 마을번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하면 마을번호사가 상담카드를 검토하고 회신한다. 현상상담의 경우에는 희망자 수, 마을번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상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에 현상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정계, 통로통행 문제부터 상습,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등 12개 읍·면지역에서 36명의 마을번호사가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앞으로, 읍면지역의 도민들이 마을번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가까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뉴스-in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성실 응대 당부

원 지사 전담 대응팀 방문을 고3 학생에 한해 등교해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교육부의 '불가' 입장에 따라 이같이 결정.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자들에 배움대응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응대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 원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별관 3층 스마트워크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 대응팀을 찾아 "도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절실한 마음이 크고 기대 또한 많다"며 "도정의 신뢰와 평가와도 직결될 만큼 위기는 기회라고 여겨 달라"고 주문. 원 지사는 이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듣고 느낀 문제점과 개선점들은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요청. 고대로기자

원 지사 전담 대응팀 방문을 고3 학생에 한해 등교해 치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교육부의 '불가' 입장에 따라 이같이 결정.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자들에 배움대응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응대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 원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별관 3층 스마트워크센터에 마련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 대응팀을 찾아 "도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절실한 마음이 크고 기대 또한 많다"며 "도정의 신뢰와 평가와도 직결될 만큼 위기는 기회라고 여겨 달라"고 주문. 원 지사는 이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듣고 느낀 문제점과 개선점들은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요청. 고대로기자

첫 모의평가 사실상 취소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기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사실상 취소.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24일 예정된 시험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일부터 5월5일까지 김포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탑승객 전원에게 계열사의 제품을 활용, 개인용 손 소독제를 제공할 계획. 손 소독제 캠페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일환으로 개인위생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업무상 출장 등 국내 이동이 필요한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제주항공은 계열사인 에경산업의 1회용 손소독제 제품으로 비행기 탑승구에서 1인 1개씩을 배포하고, 방역활동 강화도 지속할 예정. 백궐기자

부고 김용석(김용석수학학원장) 어머니 김해김씨 덕순(향년 89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20일 09시 3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4월 2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22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0빈소 ▶장 지: 서귀포시 상어공동묘지 아 들 김용석 며느리 이은실 딸 김은연 사 위 양정언 경연(매) 고태삼 정연 이수환 제연 강경돈 ※ 연락처 : 김용석 010-5691-1173 김은연 010-8660-4498 이은실 010-2400-117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수향(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21일 남 편 오창규 아 들 오용찬 며느리 김미연 오석 홍성선 딸 오장순 사 위 홍균일 정하 조태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02 공직선거법위반등 • 피 고 인 강영진 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20. 판사 장 찬 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자본 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0년 0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2,400,000,000원을 금 1,5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5,000원의 주식 480,000주에 대하여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 비례로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480,000주를 30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당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1일 세기건설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대표이사 양윤석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02 공직선거법위반등 • 피 고 인 고경호 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20. 판사 장 찬 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